

만공스님이 만해스님에게 독립자금 여러차례 전했다

견성암서 만공스님 시봉한 90세 수연스님 '증언'

“만공 큰스님께서 만해스님에게 여러 차례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벌렁거리려 한동안 진정을 할 수 없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근세 한국불교의 선을 중흥시키고 민족정신을 지킨 만공스님의 항일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증언이 나왔다.

덕송총림 수덕사(주지 정목스님)는 경하·만공선양회(회장 용산스님)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일제강점기 만공선사의 위상을 주제로 제7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나온 증언은 만공스님을 시봉한 견성암의 노비구니 수연스님(90세)으로부터 나왔다. 수연스님은 1942년부터 간월암에서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바깥출입을 삼가하고 지구정성으로 천일기도를 드릴 때 덕송총림 제3대 방장을 역임한 원담스님과 함께 만공스님을 시봉했다.

수연스님에 따르면 어느 날 원담스님이 수연스님에게 “우리 노스님(만공스님)이 실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야. 노스님이 한양에 가실 때 내가 모시고 다녔잖아. 총독부 회의에

참석했던 날도 그랬고, 선학원 고승대회에 참석했을 때도 그랬는데, 밤에는 삼청공원에 있던 은밀한 장소로 가서 만해스님을 만났다. 두 분이 나눈 말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스님이 만해스님에게 독립자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런 말 누구한테 하면 절대 안돼”라고 조심스럽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덕송총림 방장 설정스님도 학술대회에 앞선 법어에서 “만공스님은 의진왕을 비롯해 지역의 독립투사였던 김좌진 장군과 만해스님 등과도 깊은 교류를 하면서 독립을 위해 애국 애족 정신으로 살았던 선사”라며 만해스님의 상좌인 춘성스님에게 들은 일화를 소개했다. “춘성스님에게 만공스님이 만해스님에게 독립자금을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수연스님과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고종의 손자이며 의친왕의 아들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가 특별 발제자로 나서 ‘만공스님과 의왕의 항일독립투쟁’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 2면에 계속

이시영 충청지사장 tsy@bulgyo.com



지난 20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극락전에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등 다문화가정 7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천초스님의 지도에 따라 송편 빚기와 한복입기 그리고 투호 던지기 등으로 한국 명절문화를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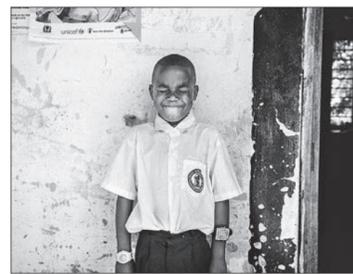
“짜파티”...3만원이면 이 아이가 웃을 수 있어요

(아침에 먹는 밀가루 전)

■ 아름다운동행이 전하는
‘아프리카 이야기’ ①

후원문의: (02)737-9595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과 후원자를 1:1로 인연을 맺어주는 해외아동결연사업을 시작했다. 매월 3만원의 정기후원금이면 반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지구 반대편, 아름다운동행이 맺어주는 소중한 인연을 소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을 지원하는 1:1 결연 사업을 시작했다. 사진은 결연을 기다리고 있는 무밀리아 우코오니 초등학교 아동.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사진을 남겼다.

어느덧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넘어선 탄자니아지만 본격적인 더위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는 이 시기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날씨는 아직 제법 선선합니다. 지난 7월 말 무감바 초등학교에 이어서 무밀리아 우코오니 초등학교로 사진촬영을 다녀왔습니다. ‘토도의 꿈(탄자니아 도서관프로젝트)’을 비롯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지만 이번은 그야말로 ‘사진’이 메인인 되는 점에서 조금 남달랐습니다.

7월 초 아름다운동행의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되었듯이 탄자니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무는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보유하고 있던 아이들의 사진이 작년 또는 올해 초의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 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이들은 몇 달 만에도 쑥쑥 자라기 때문이죠.

학교를 방문할까, 집으로 갈까 등으로 지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원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사진만을 찍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전체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사진을 찍지 않아서 괜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고,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진을 찍는다면 반대로 작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남겨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짜파티(CHAPATI, 주로 아침에 먹는 밀가루 전)”라고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1’로 끝나는 단어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전 세계가 공통적인 부분이겠지요. 촬영을 하는 중에는 짜파티 말고도 은

디지(NDIJI, 바나나), 마지(MAJI, 물) 등 은근한 단어들도 튀어나왔습니다. 주로 제가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제창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옆에선 선생님들이 선창을 하기도 했고, 주위를 둘러싼 아이들이 선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아이는 씩씩하게, 무심하게, 때로는 수줍게 “짜파티”를 소리 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을 뷰파인더로 보는 느낌은 남달랐습니다. ‘토도의 꿈’ 등 독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는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여명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집단’이나 ‘무리’로 인식돼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렌즈 너머, 벽 앞에서 서 있는 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체형도 다르고, 옷차림도 좋아하는 포즈도 다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일대일로 응시하는 순간에는 서로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찰나를 짧지만 강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같은 아이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좀 더 좋은 카메라였다면, 적어도 스트로보가 있었다면...’ 등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장비보다는 아이가 웃음을 짓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일입니다. 아마, 삼각대와 큰 카메라조차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순간이기도 하구요.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이번 사진촬영이 아이들에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연화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지부 해외봉사단원

‘개혁정신 계승’ 사부대중위원회 출범

3개 분과 출·제가 26인 위촉

공동위원장 도법스님·조성택

통합종단 이후 종단 현대사에 성찰과 중단 개혁 정신 계승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될 대중공의 기구인 ‘종단회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공식 행보에 나섰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조계종 자성교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과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선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사부대중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근거한 중령 기구로, 출·제가 26인의 과거사정리 분과위원회, 1994년 별번자처리 분과위원회, 종단개혁계승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출가 위원으로는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범안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 중앙종회의원 법해·만당·장명·범인·해범스님 등이, 재가 위원으로는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불정 회장,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식에서 “중단개혁의 정신을 잇는 것은 1994년에 대한 회고와 아니라 먼 종단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대중공사에서 함께 참여한 각종 미래상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사부대중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도법스님과 조성택 교수가 선출됐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할 총괄처장에는 정웅기 붓다로살자 연구위원이 선출됐다. 또 종단현대사에 대한 성찰과 1994년 별번자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마련, 개혁정신 계승과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과제 정립 등을 위원회 주요 활동으로 삼는 한편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월 1회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기초생활제도 변화에 따른 ‘불교복지시설 대책’... 7면

사담 생명나눔 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로 불자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소중한 자비의 후원금은 가장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집니다



희망등록 캠페인

장기기증 바로 알리기 현장 캠페인 및 지원



환자치료비 지원

백혈병과 말기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환자 및 스님 대상



생명나눔 홍보

소식지 발간, 방송/신문 등 광고



사회 인프라 구축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및 세미나 등 문화운동 지원

계좌 후원 : 농협 053-17-001346 (예금주 : 생명나눔실천본부)

ARS 후원 : 060-703-1133 (한통화 5천원)